학문단위 재배치 · 교양 절대평가 민감한 공약도 다수

1면에서 계속 ➜

앵커 선본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정 비율의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확보하는 '학생 참여 예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대학생활 정보와 학생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경희인플러스'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에 성적·장학금 조회와 교내 공지 확인, 시설물 예약, 모바일 학생증,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앱과의 차이점을 묻자 최 정후보는 "교내외 학습·휴게 공간과 학과별 제휴 혜택 등을 안내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양캠 선본 공통 공약
등록금 심의 절차 개선 · 총장 선출에 학생 투표 반영 약속

양캠 선본은 공통 공약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논의 구조 개선 ▲2028년 총장 선출에 학생 투표 반영 ▲교양 과목 전면 절대평가 전환 ▲타전공 P/NP(패스/논패스) 평가 확대를 내걸었다. 양캠 선본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통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선본은 모두 등록금 심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드 선본은 학생 대표가 등록금 인상안 마련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 정후보는 "총학생회 출범 직후 협상이 시작되면 새로 임기를 시작한 학생 대표가 이전 인상분 집행 내역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년도 2학기부터 협의를 시작해 등록금 인상률 산출 근거와 집행 내역을 사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앵커 선본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외부위원 선임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생위원과 외부위원의 사전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등심위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김 부후보는 "학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을 선임한다는 기준이 모호해 우리학교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인사도 외부위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8년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선출 과정에 학생 직접 투표를 반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드 선본은 학생 투표 결과를 25% 반영해 최종 단계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앵커 선본은 후보 추천 단계에서 학생이 직접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정후보는 "구성원별 투표 결과를 정해진 비율로 합산하고 그 중 학생 투표 결과를 25% 반영해 전체 1위를 정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 정후보는 "국제캠 총학생회와 공동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와 학생 정책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직접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선본은 교양 과목 전면 절대평가 전환도 공약했다. 이는 제58대 서울캠 총학생회 '메이트'도 추진했던 공약이다. 기존 추진 방안과의 차이를 묻자 김 부후보는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선임으로 양 캠퍼스를 총괄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후보는 "올해 안에 절대평가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캠이 정기적으로 논의할 후마니타스칼리지 혁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학생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선본은 또한 타전공 과목을 수강할 시 P/NP(패스/논패스) 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자유전공학부 1학년 학생들은 전공탐색2 교과목에서 타전공 기초 과목을 들을 시 등급 대신 P/NP(패스/논패스) 평가를 선택할 수 있다. 한학기에 3학점으로 제한돼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다.

이 제도를 모든 전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전공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대현(경제학 2022) 부후보는 "학생들이 성적 부담 없이 관심 있는 전공 수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되 재학 중 최대 6학점인 현행 기준은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알립니다

대학주보 · 대학본부 간담회

지난 16일 총장실 주최로 대학주보와 본부 주요 보직자 간 취재 협조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총장실 문병원 행정실장, 총장실 박우현 행정부처장, 권은정 기획조정처 부처장, 김영낙 단과대학 행정실협의회 서울협의회장, 오세윤 인사처장, 이준호 인사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대학주보에서는 권도연 편집장과 이서현·김민영·서라수·김가빈·박류빈 팀장, 신동면 신문방송국장, 김종현 행정실장이 함께 했습니다. 대학주보는 최근 일부 부서에서 정상적인 취재가 차단되던 상황을 전하며 대학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서면 답변에만 응하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등 언론활동의 특성상 "대면이나 유선 소통에도 열려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학 측은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아 취재에 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직원 개인의 발언이 대학의 공식 입장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담과 인터뷰 내용이 의도와 다르게 보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대학주보는 기사 전문을 미리 확인받는 것은 편집권 영역이라 어렵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해당 부분을 취재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총장실 문병원 행정실장은 "대학주보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만큼 소통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1월 중 총장과 교내 언론 간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진행되는 교무위원 연찬회 등 대학의 주요 행사에 구성원 대표와 함께 교내 언론 역시 취재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학주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내부 취재 원칙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대학과 성실히 소통하겠습니다.



